

詩誌

종 소 리

제 101 호

2025 년 1 월 신년호

시지

종소리

101 호



2025 년 신년호

(101 호)

차 례

그때 나는	박 태 진 (4)
풍습과 상상력	리 유 실 (5)
규동(牛井)	김 애 미 (6)
다 됐나?!	리 일 렬 (8)
이제는 우리가	강 명 세 (10)

저 소 으 사 소 르 / 저 키 버 켜 가 오 / 르 흥 소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한 성 우 (12)
따뜻한 얼음	조 량 화 (14)
우리도 조선의 청춘	리 선 화 (17)
《사과풍년》 추는 내 마음	배 가 나 (18)
할머니 그리며	곽 영 희 (20)
건설자의 명상	김 권 익 (22)

별 이야기	김 윤 순 (24)
로인의 눈물	김 려 우 (26)
어김없이	허 옥 녀 (28)
어머니가 웃으신다	진 승 원 (30)
사진속의 평양소주	김 성 철 (32)
뜨거운 쌀	김 명 혜 (34)

자 누 이 사 누 르 / 자 키 바 켜 가 오 / 르 흥 누

년하장	하 의 배 (36)
상봉	허 옥 녀 (38)
의거	서 정 인 (40)
그 사람	리 방 세 (41)
편지	채 덕 호 (42)

후기 (43)

그때 나는

박 태 진

선택의 순간
뭘 좀 안다고
옳은 판단이 내려지는걸까
몰랐다는게 핑계로
남을 괴롭혀도 되는걸까

네바퀴차 탄 나에게
밀어드릴가요 한마디 건네준
바로 그때 그 순간의 당신처럼
내 팔도 서슴없이
당신 등을 떠밀어줄수 있을까

풍습과 상상력

리 유 실

어제는 엄마가
선생님 경야에 가서 없었잖아

오늘은 아빠가
동료의 결혼식에 가서 없잖아

그래서 내 생각엔
여름철에 여기 있던 개미떼 말이야

개들도
장례식인가
결혼식때문에 모여들었나싶어

왜냐면
사람이 죽거나
결혼한다는게 대사건이잖아

엄마야,
안 그래?

《규동 (牛井) 》

김애미

아침 밥상우엔

《규동》

가끔 오는 이런 날이

나는 좋아

토목공 우리 아빠

야근이 끝나면

의례히 《규동》 점에서

아침식사

집에 가져간다고 추가 두개

아빠가 사오셨다는것만으로

어제밤의 외로움을

싹 지우고

새 힘을 북돋아주는

나의 진수성찬이야

-잘 먹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내 소리 닿았을가요

않지 말라

하는듯 코를 고는

아빠의 꿈속까지

다 됐나?!

-교장일기-

리 일 렬

오늘은 년말 대청소의 날
그런데...

저학년 꼬마들이 모여앉아
수조에 물을 부으며 왁작왁작
크고작은 돌을 두며 와글와글

-애들아, 어서 청소해라!
-교장선생님, 우린 바빠요.
-아니 청소가 더 바쁘지?!
-겨울잠 준비 하고있어요!
-겨울잠?

아이들을 놀리다 또 한마디
-너희들이 겨울잠 잘래?
-아니요, 가아재. 가재의 겨울잠 준비!
-가재?

교문앞 개울에서 찾은 《친구》
겨울잠 준비를 잘해야
추운 겨울 이겨낸다고
아이들에겐 이것이 《큰행사》

아직은 철없는 아이들
어느새 그 착한 마음 키웠을까
기특하기도 하지...

-그래,애들아
《친구》의 겨울잠 준비 다 됐나?
-옛!
-헌데
교실의 겨울잠 준비도 다 됐나?!
-....

이제는 우리가

-고 박재수선생님의 령전에서 다짐하다-

강 명 세

해마다 여름강습때면
우리 국어교원들에게
우리의것을 더 연구해야겠다고
국어교원의 사명
차근차근 일깨워주신 선생님

그 시간들은 저에게
대학생시절 떠오르게 해준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너그럽고 다정하게
제자들 동료들 대해주신 선생님
해마다 생일날이면
생일 축하한다
축하와 위로의 메일까지 주시여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뜻밖에 날아온

선생님 아파하신다는 소식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을 때
선생님께서서는 끝까지 제몫을 다할거라고
끝까지 병마와 싸우겠다고
우리에게 굳센 의지 보여주셨지요

더 많이 배우고싶었습니다
더 함께 웃고싶었습니다
더 같이 일하고싶었습니다
더 더 더...

선생님 령전에 섰을 때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 지으시며
저를 달래주시는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 차례입니다
-더욱 분발해야 됩니다

선생님 배워주시고
선생님 가르켜주신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고스란히 이어갈것입니다

-동시-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설맞이공연을 위한 훈련의 나날-

한 성 우

어머닌 날 보고
말씀하셨지요
- 바다건너 너 홀로 조국에 가면
이 어머니 얼마나 그리웁겠니

그런데 어머니,
조국에도 어머니가 계셨어요
방이 추울세라 담요도 덮어주고
배가 고플세라 다과도 나누어주는
우리 조국의 호텔엔

추운 날씨에
찬바람 맞으며 감기라도 들세라
《마늘주머니》도 목에 걸어주며
차근차근 돌봐주는 호텔어머니

공연훈련 그 나날
날마다 별식도 차려주었어요

구미에 맞는가 많이 들라고
따뜻하게 권하던 호텔어머니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제집에 온듯 언제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깔깔깔 웃으며 노래부르며
우리 조국 품에 안겨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맛있습니다
조국에서 처음 맛본
대성산아이스크림

오랜만에 조국에 온
이역의 아들딸들에게
조국의 맛과 향기
맘속에 함뱍 간직하라고
기대공언니들 한가득 안겨준
대성산아이스크림 !

싱글벙글 웃습니다
바위처럼 말이 없던 저 남동무들도
웃음많은 처녀들은 더욱
한개로는 성차지 않아
저마끔 두개 세개 손에 들며
《욕심》을 부립니다

머리 흰 로교수도
엄하신 학부장선생님도
이역에서 맛보던것에 비길게 못돼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맛이라
얼굴가득 웃음짓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입에 넣으면 순간에 무르녹는 아이스크림
이 차거운 작은것에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어려있는지

세상에서 제일 귀한것
인민의 웃음이기에
오직 하나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소문없이 일떠세운 사랑의 집

입안은 찬데 마음은 훈훈해집니다
삼켜도삼켜도 따뜻하기만 합니다
이역땅에 가서도 잊을수 없는

조국의 따뜻한 사랑
언제나 우리를 다잡아주는
인정의 맛입니다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어문학과 4 학년)

독자란 -가사- 우리도 조선의 청춘

리 선 화

청춘 그 이름에 비긴 창조의 열정
이 땅우에 기념비로 솟아빛나라
샘솟는 정열로 쌓아올린 그 기적은 하늘에 닿아라
아, 불같은 그 열정 닮으리라
우리도 조선의 청춘

청춘 그 이름이 지닌 불굴의 기상
역경을 순경으로 들부시였네
고난과 시련을 다스린 그 자욱은 별처럼 빛나라
아, 역세인 그 기상 닮으리라
우리도 조선의 청춘

청춘 그 이름에 새긴 숭고한 전통
우리 가슴 붉은 피로 고동치여라
이국땅의 모진 광풍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리라
아, 위대한 조선을 닮으리라
우리도 조선의 청춘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어문학과 4 학년)

배 가 나

경쾌한 음악이 울리며 막이 오른다
무르익은 사과나무가지를 헤치며
주렁주렁 열린 사과 따러 가는 길
-(알알이 잘도 익었구나!)

정성들여 자식처럼 가꾼 사과나무
향긋한 향기 풍기며
빨갭게 익은 사과 한알을 준다
-(누가 마련해주신 사과일가...)

끝없이 펼쳐진 사과밭은
북청회 《교시》의 빛발아래 맺혀진 사과열매
풍만한 가을을 마련해주신
아버이의 크나큰 은덕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로동으로!)

사과풍년 대풍년 마음도 풍년
조선의 온 집안 식구들의 기쁨

자신의 기쁨으로 아는
과수농장처녀들 로동의 희열 내 희열로

그대들의 생활감정을 무대화폭에 담는다
사과를 따들이는 내 춤가락마다에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서
조선의 《과수농장처녀》 되여!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어문학과 3학년)

어릴적
포근히 안아주신
할머니 품 못 잊어
자주 떠오르는 추억

부모슬하 떠나면서
학교를 다니며
이따금 집으로 돌아가면
불에 불을 비비며
기뻐하시던 할머니

이부자리에 함께 누우면서
그리운 고향산천이야기 하시던
주름잡힌 할머니의 영상

리별한 딸과 아들 그리며
못내 슬퍼하시여
불을 적시신 모습

수많은 할머니의 모습과 자옥은
민족의 슬픔, 조국의 귀중함을
내 가슴에 심어주셨어라

온몸에 새겨안은 추억
떨수도 지울수도 없는 추억
영원히 간직하리라

(이바라끼현거주)

건설자의 명상

김 권 익

울타리 고운 살림집 넓은 뜨락에
한그루 또 한그루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으며
가슴뭉클 젖어드는 생각이여

나무들아 한해두해 세월이 흐르면
주렁주렁 열매들 무르익겠지
그 열매 따먹으며 이 집의 아이들
얼굴에 함뱍 웃음을 담으리

이름도 얼굴도 알수 없건만
나는 그애들과 속삭이고싶구나
바로 그 웃음을 위해
더운 땀 바쳐온 건설의 나날들에 대해

말하고싶다
저기 시원스레 뻗어간 동구길에도

창문마다 해빛 눈부신 새 교사에도
우리의 구슬땀이 스며있음을

다 말하고싶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한مام으로 받드는
우리의 진정과 량심이 기초가 되고
불같은 헌신이 지붕이 되어
황홀한 선경마을 일떠선것을

허나 굳이 말하지 않은들
우리 후대들 어이 모르랴
희한하게 전변된 농촌의 새 모습에
우리의 모습도 비껴있음을
조국과 후대들의 기억속에
우리 모습 영원히 빛날진대!

(조선거주)

별 이야기

김 윤 순

우리는 이 별에서 만났습니다
삶이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이 별에서
우리는 기적처럼 만났습니다

오늘도 이 별 여기저기선
전쟁의 불협화음 울려 퍼지고
밤하늘에 빛나는 희미한 별빛처럼
아가들의 울음소리 울립니다

이 별에서 태어나고
이 별에서 만나고
이 별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이건만

이국의 별 반짝이는 통학길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살을 에는 밤마다
형형색색 응원봉 들고 뛰쳐나온
아이들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희망이라
《탄핵만세!》 축배잔 짚으며 웃는 우리는
50 대 찬란한 여성들입니다

로인의 눈물

김려우

젊은이들속에 끼인
로인은 혼자 운다
꼭 참고있던 울음을
소리없이 터뜨린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아스팔트마저 얼어붙은 광장
손자별 청년학생들
《응원봉》 휘두르며
래일을 부를 때

4.19 에 나섰던
중학생시절이 떠올라선가
품어키운 자식을 부모로 삼은
광장을 메운 이들이
너무도 미더워선가

남들은 곁에 있는이 부등켜안고
목청껏 만세부르는데
로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입술로만 만세를 다시 웨친다

총포탄을 겪은 자신들의 뜻이며
어둠을 초불로 밝힌
다음 세대의 의지가
그때는 태어나지도 철들지도 않았던
이들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지고있음을
맵짠 추위속 《피부감각》으로 새길 때

새세대들 노래하는 미래가
저 하늘에 그려지고
흘리는 눈물이 바닥을 녹이여
새해가 밝는다
새날이 온다

어김없이

허 옥 녀

여름옷 겨우 치워 가을옷 장만하니
어느새 어김없이 찬바람이 불어오네

어찌하여 하루가 이렇게도 짧을가
오늘은 해야 할 일 다 해내었을까

어제는 책장정리 오늘은 옷장정리
해도해도 끝없는 인생정리의 나날

그래도 돌이켜보아야지 어김없이
손자들앞에 부끄럼없는 나날이였는지

동포들과 함께 걸어온 내 한평생
보람많은 지난날을 어찌 잊으랴

기나긴 이역살이 고생도 많았지만
괜찮은 날이 더 많았다 전해줘야지

가슴속에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좋은날은 어김없이 온다 말해줘야지

어머니가 웃으신다

진 승 원

《우리 학교에 나무를 심자》
새하얀 종이봉투엔
그리 씩여졌다

얼마를 할가 빙글
삼천엔을 담더니
아담한 새교사에
푸르싱싱한 나무가
떠오른다

좋아라고 싱글
두장을 더 담더니
목련꽃 아래서
꿈얘기 나누는 애들이
떠오른다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
나의 정든 모교

내가 교편을 잡은 곳
다 해도 모자라는 힘
아껴서 뭘 하겠는가

공리하다 공리하다
지갑속 다 털어 담더니
텅 빈 지갑이 말하더구나
그렇지 그래야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머나먼 추억속에서
어머니가 오냐 웃으신다
찾아오신 교육회선생님께
래일 밥값까지 다 바치신
어머니가 오냐 웃으신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웃으신다

사진속의 평양소주

김 성 철

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술병 사진 한장
상표엔 활달한 붓글씨
《〈평양소주〉 2024 년 생산》

대학 졸업반 아들이 평양에 가있다더니
선물 하나 잘도 골랐네
컴퓨터 화면속 술병사진을
그리운 나머지 훑다싶이 본다

심장은 두근두근 얼굴은 화끈화끈
목구멍에선 《카아》 소리
보기만 해도 온몸에
술기운이 도는것 같구나

얼마만이냐 평양소주야
조국의 하늘아래서 너를 기울이던
추억깊은 나날들을 사연많던 사람들을

꿈엔들 잊지 말라 오늘도 속삭여주네

어수선한 세월 저리가라는듯
탁상우에 평양소주 척 올려놓고
술안주엔 내 나라이야기
동포가정 류다른 풍경을 그려본다

주거니 받거니
취해가는 밤
주거니 받거니 깊어가는
애국의 정...

몹쓸놈의 이 나라에선
맑은 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
그래, 몸도 마음도 깨끗이 씻어주는
평양소주 두어사발 당장 먹어야겠다!

뜨거운 쌀

김 명 혜

받아안은 쌀에서
김이 물물
보기만 해도 먹음직하다
제자가 보내준 귀한 쌀

쌀가게랑 시장에서도 쌀이 없어서
구하러 야단법석한 여름철
뜻밖에도 보내온 흑가이도 《칠성》 쌀
너무도 고마워 환성 올린다

교육회장사로 쌀판매 하게 되었다고
선참으로 보내온 쌀
너무도 아까워서
한동안 바라보기만 한다

한알한알이 눈부시게 반짝인다
학교재정사업에 끈기있게 나서는 열성
입안에 단맛이 돌고돌아

자꾸만 배부르기만 하다

《뜨거운 쌀》에서
그리움과 보람
사제간에 두터워진 정이
김이 되어 몰몰

년하장

하 의 배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나눌
수단과 방법은 너무 많아서
년하장 안 쓰게 된지 오래여도
조선땅에는
해마다 빠짐없이 써보냈었다

그놈의 비루스때문에
편지 한장 오고가지 못할 때는
어쩔수 없는것으로 알았다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다 이 년말에는
오랜만에 혈육들과 말 나눠볼
년하장을 쓰리라 걱정했건만 ...

어린 학생들
춤노래 안고가는 오늘

종이장은
언제까지 못 가는것일가

쉽게는 못 만나는
그리운이들과
서면으로나마 만나보는 날
언제면 오려나

상 봉

허 옥 녀

막내손녀의 운동회 점심시간
교정의 수국화가 너무 고와서
운동장둘레를 기분 좋게 걷더니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불쑥 나타난 사나이

《응?! 군선이냐?》
《군조입니다. 선생님》
형과 헛갈려 이름을 부르다니

수십년만에 만난 제자
활달하고 안색이 밝아 몰라보겠구나
조용했던 학생시절의 모습은 어디?

아이 셋이 다 우리 학교 다닌다니
너무너무 자랑스럽구나 제자야

덥석 잡은 두손을 놓고싶지 않구나

순간의 상봉이여도

오래오래 가슴속에 남을 상봉

새힘 주는 상봉 행복한 상봉이여라

의 거

서 정 인

찬바람 부는 날
지팡이에 의거하며
할아버지가 뺨스에 오를 때
그의 팔을 잡고
할머니가 따라서 오른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의거하는
할머니의 동작을 살피며
천천히 간신히 오른다

뺨스를 타고서는 어떠하며
집안에서는 또한 어떠한지
짐작해보는게 어렵지 않아
아주 남이지만
포근해졌다

그 사람

리 방 세

비에 는 안 젖는다
그 사람이 우산이니까요

밤길도 두렵지 않다
그 사람이 등불이니까요

찬바람에도 춥지 않다
그 사람이 봄이니까요

혼자 가지 말라
그 사람이 빙긋 웃는다

편 지

채 덕 호

난생처음 시집을 내였다
30년간 써온 시들을 묶은
《어머니가 받으신 꽃다발》

읽은 누나한테서 편지가 왔다
귀한 돈과 함께

-시집 출판을 축하한다
시를 읽어가는데 눈물이 하도 나와
못 읽을만큼이었다
어머니 보고싶구나

내앞에서 눈물 한번 보이지 않던 누나였다
항상 태연하고
옳은 일 틀린 일 똑똑히 가려내는
흔들림없는 굳센 마음 지닌

어머니가 떠나신 이후에도
해마다 년말이면 해뜨기 전 중앙시장에 나가
신선한 물고기 사들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처가에 보내준 누나

이런 귀한 돈 받지 못하겠다는 나에게
-바보같은 소리 하지마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출판을 위한 돈 다 내주셨을게다
하고 욕소리 한다

누나
나는 누나가 보낸
정성어린 편지속에
어머니를 봅니다

101 호 후기

지난해 10 월 26 일에 《중소리》 100 호발행기념모임을 도쿄에서 가졌다. 소박한 모임이었으나 각지에서 달려온 시인들과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도 우리 말로 《중소리》를 계속 올려나갈것을 다짐하고 재확인하는 뜻깊은 모임이었다. 우리의 말과 글을 늘 사랑하고 내나라를 위하는 변치 않을 마음들을 합치여 찬바람도 맞받아 신심 드높이 나아갈것이다. (인)

詩誌 中 소 리

発行 《중소리》詩人会
代表・編集 徐正人 校正 韓誠宇
e-mail sousakukadai@yahoo.co.jp
発行日 2025年1月15日 (日本・東京)

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지 《중소리》는 101 호이후 보시는것처럼 이렇게 web 발행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중소리》를 사랑해 주시고 시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연간 1,000 엔의 캄과모금에 찬동하여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리해하시여 협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송금해주실 口座는 아래와 같습니다.

ゆうちょ銀行 (記号) (番号)

10080 20334451 ソ チャンギョ

※ ゆうちょ銀行이 아닌 다른 金融機關을 통하여 송금해주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指定해주십시오

【店名】〇〇八 (読み ゼロゼロハチ) 【店番】008

【預金種目】普通預金 【口座番号】2033445

101 호